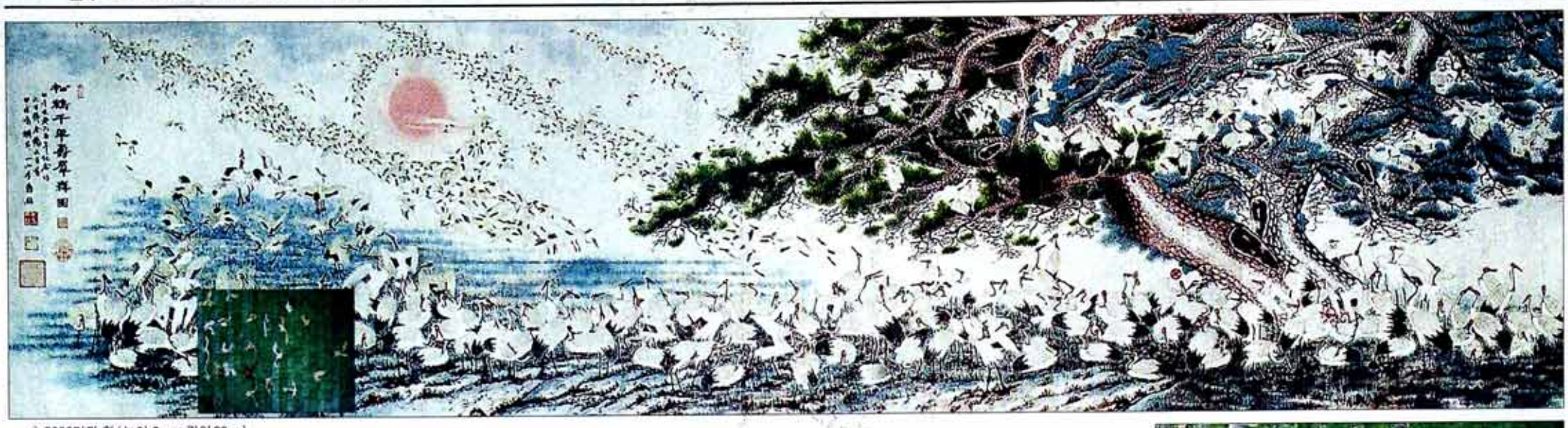


◇ 2002마리 학 (높이 3m × 길이 20m)

동양화 37년…
佛畵로 예술혼 승화



◇ 학들의 축구장

자신만의 예술세계 추구
소산 이정현 화백

평생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묵묵히 추구하며 정진해온 이가 있다. 동양화가 소산 이정현씨가 바로 그 주인공. 이 화백과 불교와의 인연은 남달랐다. 어머니의 태몽 꿈부터 지중한 인연이 시작됐다. 경북 풍기에 고향을 두고 있었기에 어머니는 부석사와 인연이 되어 항상 기도를 드리러 다녔다.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은 시절이라 그리 풍족하지 않았지만 향, 초, 공양미 등을 정성껏 올려 부처님 시봉에 정성을 다하고 정진했다. 그러던 어느날 꿈속에서 부석사 스님이 나타나 좌측에 금불상, 우측에 동자상을 보시며 어느 쪽이 좋은지 물으셨다. 그러자 어머니가 스님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음짓자, 스님은 좌측 금불상을 잡고 던졌다. 이어 어머니가 깜짝 놀라 치마로 받고 깨어보니 꿈이라 하도 신기해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후 이정현씨가 5세 되던해 부석사 스님이 이씨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 동양화와의 첫 만남이었다. 오전에는 서예를 오후에는 사군자를 연습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사군자 10폭을 그리려면 많은 연습과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어도 힘들다고 했지만 이 화백은 힘차고 섬세한 필치로 한국최초 12폭 사군자를 그려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서예학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각종 서예대전에서 입상하면서 이름이 알려져 물질적으로도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열망만은 항상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중 어느 날 전격적으로 서예학원을 그만 두기로 결정했다. 이 화백은 "그 당시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느낀 성취감 때문이었는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운영하던 서예학원이



월드컵 성공기원 학 2002마리
길이 20m의 대형 화폭에 담아

의 출가를 권유했으나 유난히 귀여워 하던 할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당시 스님께서는 출가를 못시키면 부처님께 추수 공양미, 장삼 한 벌을 공양하라고 말씀하셔 어머니는 바로 마차에 공양미를 실어 부처님께 정성을 드렸다고 한다.

불교와의 처음 인연이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부터 시작되었으니 진정으로 부처님께 정성을 드리며 사는 것이 이 화백의 생활이었다. 안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밖으로는 오직 동양화 작품세계에 정진할 따름이었다.

"젊은시절 일찍 서울에 터를 잡고 생활하면서 너무 고생을 할 때면 조계사 법당에 108배 및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다잡아 가면서 힘든 것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이것이 인생인가 되짚어 볼 때도 많았습니다."

이 화백이 동양화를 그리게 된 것은 30살 늦은 나이였다. 주경야독하는 서울생활속에서 우연한 기회에 서예학원과 인연을 맺었다. 이전에 펜글씨를 잘 쓴다는 칭찬 몇 마디는 들었지만 공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서예학원에 다니면서 남달리 숙달하는 속도가 좋아 행서, 초서, 갑골문 등을 일찍 마치고 사군자





하다고 느낀 분야는 최고로 잘한다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크로키, 꽃, 화조, 동물, 새 등을 차례로 탐구했다. 동양화에 입문한 지 37년 동안 그림공부에만 전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화백의 예술에 대한 구도 열정은 대단했다. 특히 동양화 중에도 이 화백은 학을 소재로 한 작품을 즐겨 그려 왔다.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최근에는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2002마리 학'을 그리는 노익장을 과시하시도 했다. 길이 20m의 대형 닥종이 위에 펼쳐진 학의 춤사위를 보고 있노라면 절로 감탄사를 자아내게 된다. 이 화백의 학에 대한 애정이 지금껏 살아왔던 그의 인생행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절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올곧게 지금껏 살아왔구요. 학은 꿈이고, 하나의 희망입니다. 예로부터



달마선사 일대기 … 300점 남겨
경주남산 돌부처 그리는게 꿈

학은 신성시 돼왔고 특히 불교에서 길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학이 2천여마리 정도 밖에 안되는 희귀조인 만큼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과 더불어 지구상의 학을 다 담아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작품을 그렸다고 한다. 대개 명작에는 특별한 사연이 깃들여져 있듯이 '2002마리 학'도 어려운 과정속에서 탄생되었다. 화폭에 빠져 살다 보니 주머니사정이 나빠져 작품 제작비를 마련하느라 고초를 겪었다. 특히 '2002마리 학'은 대형작품이라 종이도 특수주문을 해야 하는 등 일반작품보다 제작비가 훨씬 더 필요했다. 고심끝에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 경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집을 내놓았지만 매매 가 이뤄지지 않아 경비마련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 결국 2002마리의 학 그림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는가 하는 허탈한 마음도 일었다.

조계사서 기도 · 108배 정진
어려웠던 젊은 시절 극복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우연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보현정사와 인연이 닿아 보현 주지스님께 자세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작품은 꼭 만드셔야 될것같다며 발원 기도를 올리자고 했다.

정성껏 기도를 올리던 어느날 이었다. 기도도중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며 캄캄한 색이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순간 '검정색은 나쁘고 불행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시는 작품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검정색이 옅은 회색으로 다시 연한 하늘색으로 변하면서 갑자기 허공에서 '왜 놓고 있어 하던일을 마저 해야지' 하시는 경책이 들려 갑짝 놀라 깨어보니 보현 스님께서는 아직도 옆에 앉아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정성스런 기도의 가피 때문일까, 기도가 끝난 뒤 몇일 지나지 않아 집이 팔려 작품경비가 마련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리게 된 작품이니 만큼 온갖 정열을 기울여 '2002마리 학' 작품을 완성하게 됐다.

"작품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진정한 그림은 선경일여의 경지를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라는 강한 믿음때문이지요. 또한 부처님께 좋은 작품되기를 부탁도 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 화백은 불화와 함께 개인적으로 달마대사를 좋아해 달마도도 자주 그린다. 달마의 일대기를 장년에서 말년까지 300여개 형상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여 그렸고, 이중 12폭에 담은 좌선하는 달마는 모두 다른 시선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형상화 해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더군다나 한번도 가보지 못한 중국 소림사 동굴에 있는 달마의 원형과 너무나 흡사해 자신도 놀랐다고 한다.

이 화백에게는 생을 마치기전 소중한 꿈이 있다. 경주 신라인들이 불국토를 염원하며 세웠던 남산의 돌부처를 화폭에 담는 것이다. "실크로드, 돈황 등 세계에 수많은 부처님상이 있지만 규모는 클지 [illegible]도 경주 남산 본존불의 섬세함과 우아함, 자연스[illegible] 앞에 서는 아마 고개 숙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화백은 30년 동안 보관해 온 자신의 작품들이 예술과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 동안은 작품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공수레 공수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작품이라고 몸 벗을 때 가져갈 수 없지요."

더욱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 사찰 건립 서원도 세웠다는 이 화백은 오늘도 속세의 아단법석에는 아랑곳 않고 작품 삼매에 빠져 있다.

"보관작품들 예술 · 불교사랑하는 사람과 인연맺게 해줬으면…"



◇ 소산화실 02)334-4334